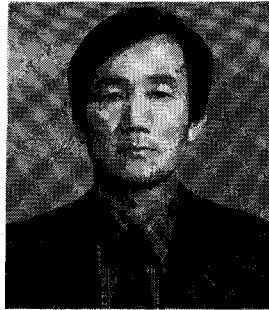


특 집

원유가격 차등제에
대비한
유질향상 방안

유질 향상,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종 영

충남 보령군 천북면 궁포리 덕수농장

낙농업에 종사한지 25년

젖소와 인연을 맺은지 사반세기. 그동안 하루도 젖꼭지를 만지지 않은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는지.

아침 5시면 기상하여 저녁 11시~12시까지 목장 전체를 돌아보고서야 침대에 몸을 던지면 바로 다음날 새벽 5시 벼락과 같은 소리를 내는 쾌종시계가 원망스럽게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젖소의 젖꼭지 만지는 착유작업이 나를 기다린다. 덕수목장의 착유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축현3리에서 손착유로 유우1두 부터 시작했다. 1978년 현 위치로 목장을 옮기고도 1년간 손착유는 계속되었다. 두손으로 힘차게 젖꼭지를 짜지않았는가? 양동이를 두 무릎에 차고서...

하절기에 파리, 모기의 그 극성속에서도 어쩌다 고약한 젖소의 발길질에 거의 다 짠 우유의 양동이 가 없

어져 우사바닥 전체가 흰 페이트를 쏟아 놓은듯이 흰 우유빛으로 변하고... 집사람은 아기를 등에 업고서 유방을 닦아주고 착유한 양동이의 우유를 여과망에 걸러서 우유통에 넣고 물 호스를 물탱크에 넣고는 작두펌프로 물을 풀 때 등에 업힌 아기는 잠이들어서 고개를 이리까다 저리까다 엄마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노력에서도 산패로 인한 피해는 일어났다.

손착유 다음

내가 만난 카우펫 착유기 즉 바켓스 타입이었다.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모터 소리가 커서 그렇지 착유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다.

경운기로 풀을베러 갈 때 점심을 가지고 가서 늦게 까지 돌아오면 그런대로 집사람이 착유를 해 준다. 그

런지 얼마 후 냉각기가 등장하고 보니 원유관리에 특별한 신경이 덜 쓰인다. 산패가 없으니 제법 낙농이 할만했다.

그런속에 가끔 유방염으로 분방이 부위 젖소가 채식을 거부해야만 유방염인가 하고서 먼저 유방염 치료연고부터 시작해서 항생제를 이약, 저약 마구잡이로 쓰다가 치료가 안되면 그 소는 도태 사육두수가 몇두 안되지만 일년이면 유방염으로 인한 도태가 가장 많았다.

가끔 생각지도 않은 C. M. T 시약을 유업체에서 보내주면 그 C. M. T 시약은 약장 한구석에서 먼지만 폭 덮여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돈과 관계되는 것은 유지방이지 세균, 체세포는 무슨 용어인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았었는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C. M. T 검사를 해 보니 우리목장에서 유량이 제일 많은 노산우 네 꼭지 검사결과는 모두다 시약이 물엿 모양으로 판정관에서 흐르지도 않는다. 전체 두수를 검사해 보니 유방염에 안걸린 소가 없었으며 초산우 2두만 괜찮았다. 검사가 잘못된 것이거나 하고 이웃 목장의 사정을 물어보니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세포검사는 모두 다 그런것인가 보다 하면서도 가끔 월간낙농육우에 실리는 유질개선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읽어보고 우선 착유과정을 깨끗이 해서 세균수를 줄이기로 하고 착유시 자주 바켓스를 갈고 수건도 몇두에 한장씩 사용했다.

그저 착유과정을 적당히 쉽게하고 유지방만 4.0%면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농가의 잘못된지, 축산당국자의 잘못된지, 아니면 원유검사 제도상 문제인지 어찌됐거나 낙농가는 오직 원유대금과 관계되는 유지방에 매달릴 수 밖에...

80년 말짬

착유우 30두 사육규모에 중력식 분뇨처리 축사를 신축하고 다음해에 파이프라인 착유기를 설치하니 착유시간도 많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바켓스들과 우사 모퉁이에 있는 냉각기까지 뛰지않아도 된다.

단지 그때 모든 시설투자를 작업시간 단축과 사람이 편해지자는 차원에서였다. 유질개선 쪽은 전혀 생



냉각기에서 원유를 떼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를 찾았다. 물론 유달리 깨끗히 착유한 날을 골라서, 며칠 후 결과는 “세균수 310만, 체세포수 400만” 아니 이렇수가 열심히 닦고 문지르고 했는데 결과는 뒤통수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듯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수치가 워낙 엄청나서 엄두를 못냈다. 제일 걱정이 체세포수다. 과연 우리 소에 50%는 유방염이란 말인가. 저 유량많은 저 소의 운명은 이제 어찌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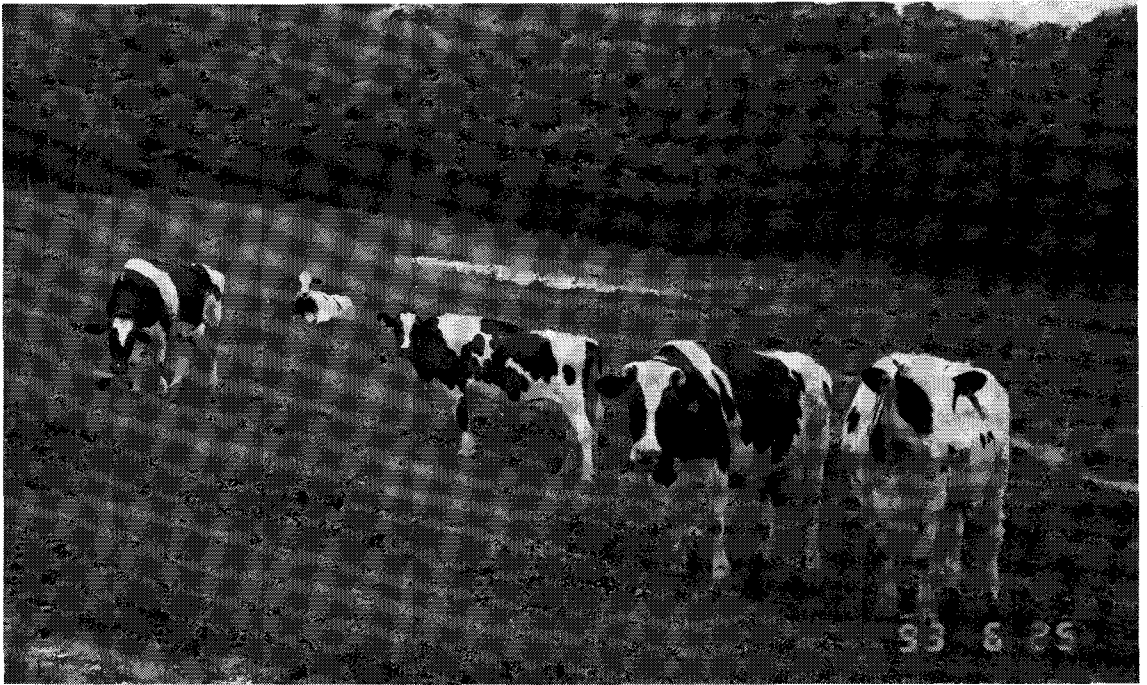
각박 이었다.

가끔 냉각기에서 원유를 떼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를 찾았다. 물론 유달리 깨끗히 착유한 날을 골라서, 며칠 후 결과는 깜짝 놀랄정도.

“세균수 310만, 체세포수 400만” 아니 이렇수가 열심히 닦고 문지르고 했는데 결과는 뒤통수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듯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수치가 워낙 엄청나서 엄두를 못냈다. 제일 걱정이 체세포수다. 과연 우리 소에 50%는 유방염이란 말인가. 저 유량많은 저 소의 운명은 이제 어찌되는 것인가.

그후 강원도에 P유업체가 탄생했고 가끔 우리낙농가에 귀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부에서는 과대선전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우유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나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무언가 꺼림직한 것이 있었다.

“깨끗이 해야한다” 잘못하는 우리의 아기의 식량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강원도 P업체를 방문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처음 배웠다. 유질개선은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원유의 질을 높이려고 한것이 아니라 엉터리 착유방법으로 착유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했다. 축사도 착유기도 준비가된 상



태인데 가장 중요시 해야할 착유과정 그리고 원유관리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시장에서 수건을 한보따리 사고 C. M. T. 시약도 많이 준비 해가지고 착유기 세척수도 알카리, 산성 그리고 착유전 예비세척을 거쳐서 착유를 하자 무슨짓이나고 종업원들도 짜증을 낸다 그러던 중 옥수수 파종시기가 닥치니 이제 옥수수 파종을 끝내고 다시 해보자 하고 미룬것이 한해 여름을 보냈다. 목장의 유질개선은 하루를 미루면 한달이 되고 한달을 미루면 일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당장 시작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다. 언제 목장에서 한가한 시간이 있나, 사정상 하루 이틀 미루다보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한 유질개선 이제는 온가족이 동원이 됐다. 목장 앞 긴 빨래줄에는 흰수건이 많이 걸려있으며 학교 다녀온 어린 두딸 아이도 의례 수건말려서 잘 정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히 착유과정을 깨끗히 하고는 이제 번거로움도 습관이 되고 유방염 치료를 해야겠지 하면서 우선 세균, 체세포 검사 의뢰를 가축위생시험소에 해 봤다.

물론 검사시료채취 당일은 더욱 더 깨끗히 했고 C. M. T. 검사도 잘 해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의 우유는 폐기처분한 상태에서 의뢰를 했다. 며칠 후 결과는 이러했다.

세균수 250만, 체세포수 200만 유질개선이란 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고생해도 댓가도 없고 그러던 중 우리 덕수목장도 유질개선을 하려면 개선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강원도 P유업체로 원유를 납유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후 낙농부 직원이 방문해서 잘 지도해 주고 나 역시 고생스럽지만 따라서 실천해 보니 세균수도 잡혀가고 체세포수도 안정되어 갔다. 물론 착유소 27두중 4두는 유방염 치료 불능으로 도체처분된 상태였다.

처음에 620kg 납유 하던것이 개선후 460kg, 많았던 유량이 도태, 치료, 전착유 등으로 폐기 처분되니 자연히 전체 유량과 착유두수는 줄 수 밖에 없다. 당시 우사벽에다가 큼직하게 착유기 세척, 착유요령을 써 놓았고 두당 수건 두장 전착유 5~7회라고 써 놓았으며 "유방염 치료는 조기발견 조기치료"라고 더욱

더 크게 써 놓았다. 그러나 젖소에 유방이 깨끗해야지 지지분하면 아무리 닭아도 세균수는 줄지않기에 운동장을 통풍이 잘되는 산위 언덕에다 새로 만들어주고 두개의 운동장을 써보니 유방도 깨끗하고 착유하기도 수월해졌다. 물론 세균수도 자연히 내려가고 유방염 치료는 유방염에 걸린부분을 배양검사 의뢰해서 항생제를 써주었으며 치료를 요구하는 젖꼭지는 착유자가 아무나 구별할 수 있게 좌측 앞부분을 치료중이면 좌측 앞 발목에다 청테이프를 감아준다. 또한 치료일지를 써서 감아주면 더욱 더 좋다. 우측 뒷부분은 우측 뒷발목에다 표시해두면 어느 착유자라도 알아 볼 수가 있다.

1개월 후 세균수 1만이하 체세포수 30만 이하로 유질이 안정됐다. 그러나 세균수는 변화가 매우심하다. 오늘 3천이하던 세균수가 내일 몇만이 넘기는 보통이다. 특히 일기불순, 착유기가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온수기가 고장났을 경우, 냉각기가 냉각이 잘 안될 때는 여지없이 세균이 증가하며, 파이프라인 연결 부위에 고무링, 바킹이 새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세포 문제로 유방염을 치료하다 완치가 안되고 자주 도태하다 보면 육성우를 사육안하는 목장은 여전히 초임만삭만 사들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목장에 착유우가 자꾸만 줄어들게 되어서 kg당 단가는 더 받으나 목장에 착유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다.

필자 목장의 경우에는 지금은 N유업체로 납유하고 있으며 원유가도 요즘은 kg당 평균 630원을 받는다. 물론 1등급 세균 1만이하 체세포 20만 이하는 680원을 되었으나, 월 평균치를 따지면 630원 선이다. 즉 일반 원유 납유농가와 비교하면 kg당 약 100원~200원 더 받는 셈이다. 고생은 많았지만 유질개선 문제로 시설투자를 그동안 많이해서 지금은 후리스톨 우사에 분노는 스크레파로 처리하고 있으며 착유는 헤링본 2열 4두로 하고 있다. 시설 투자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정부 지원금도 있고 또한 타목장 보다도 유질개선 한 만큼 kg당 더받는 유대로 시설투자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해 왔다. 역시 유질개선에는 시설투자, 착유기, 냉각기 부분이 투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농

가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시대가 왔으니 낙농선진국에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양질의 원유를 우리가 생산해야만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간 유질개선에 관한 좋은 책자가 각 목장에 배부되었으니 전국의 낙농인은 꼭 해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때 우리의 낙농은 이땅에 정착될 것이며, 축산당국자들은 항상 농가와 집유업체간에 문제가 되는 검사제도를 어떻게 해서 낙농가의 의심과 불신을 없애 주려는지...

필자의 경우 3년간 유질 개선을 해보니 오늘 우리 원유에 세균, 체세포를 대충 짐작하게 됐다.

일기가 불순하고, 착유기가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세균수가 얼마쯤 될 것이다. C. M. T. 검사결과 몇 꼭지가 안좋았으니까 체세포수는 얼마쯤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나의 예상치가 대개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밖의 등급이 나오면 필자는 목장에서 관리잘못 보다는 우선 검사기관쪽에 의심을 하게 된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검사인지 매일 똑같이 잘 관리했는데 어제는 1등급, 오늘은 3등급이라니.

검사성적표를 받는 순간 돈보다도 하루에 일과를 망쳤구나 생각하면 허전한 마음이 들고 사가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해서 등급을 주니...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만 사실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유지방 검사로 유대가 결정되는 때 보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아울러 정부당국에서는 유질개선을 빨리하려면 낙농가에 축사시설자금, 착유기, 냉각기 설치자금을 많이 보조해 주고 유방염 치료시 약품대를 보조해 주고 만성 유방염으로 도태되는 도태우는 도태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될 줄 안다.

유질개선은 온가족이 정성을 다할 때 그 목장은 빨리 유질개선이 될 것이며, 외면하면 한만큼 손해를 보며 머지않아 낙농업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이다.

우리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하루 속히 낙농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자.